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무산

중앙종회, 前호법부장 세영 스님 추천안 발의자 철회

단독 후보로 추천됐지만
호법부장 직무 미흡 지적
10월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체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달 17일 종훈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원로회의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 시 차기총무원장선거까지 선관위원장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8월 16일 개원한 제211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총무원장 불신임안 처리 이후 상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뤘다. 하지만 격론 끝에 발의자가 안건을 철회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중앙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용주사 출신 前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단독 추천됐다.

복수의 종회의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서는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들이 세영 스님 추천에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몇몇 종회의원들은 "세영 스님의 호법부장 재직시절 용주사와 마곡사 등에서 발생한 금권선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前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친자의혹이 제기될 당시 호법부가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이는 현재의 종단 사태에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도 세영 스님을 추천한 종회의원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벌어질 총무원장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추천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위원회 간사 태성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앙종회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된 신흥사 득우 스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교구본사주지 연령제한을 만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한편 종책질의에서는 최근 직원 횡령사건이 벌어진 사회복지재단과 유전자 검사를 위해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하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 사진을 배포한 기획실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종회의원 화림 스님은 '복지재단 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 교육현황과 도덕성 결여 극복방안'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가치와 윤리, 인권보호, 시설회계 투명성 강화 등 매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윤리와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총무원장의 유전자 시료 채취 사진 배포가 적절한지 묻는 광전 스님의 질의에 기획실 측은 "총무원장스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유전자 채취 과정을 가감 없이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무분별한 의혹제기 및 유전자 검사 시행 유무에 대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횡령혐의 불기소 결론

8월 6일 검찰서 사건 종결

지난 5월 MBC PD수첩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일반인들이 현응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조계종은 "일반인 2인이 현응 스님 해인사 주지재임 기간(2004.10~2008.8)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5월 23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고 8월 16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조사를 이첩,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수사대는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된 식당, 주점, 호텔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7월 30일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8월 6일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현응 스님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음 △일부 주점사용과 노래방 이용도 외빈접대나 직원회식 경우이며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외빈접대나 직원회식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에 드는 것으로, 사찰회계매뉴얼에 규정돼 있어 문제 없음 등을 불기소 이유로 밝혔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이 8월 15일 저녁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15회 무술년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천태불자들 폭염 속 안거 '돌입'

천태종, 단양 구인사서 무술년 하안거 결제식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계속된 폭염 속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여름 한 달 안거정진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8월 15일 저녁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5회 무술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종정 도용 스님은 안거대중에게 결제법어를 통해 "계법을 지키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고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마음자리에 어긋나지 않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잘 알고 한 달간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결제사에서 "정진 공덕은 어떤 도둑이 와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에서 건져 주고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자비지혜의 대광명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무술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남성 113명, 여성 546명 등 총 659명이 동참했다. 또한 전국의 천태종 말사에서도 불자들이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통해 각자 정진에 나선다. 안거 해제식은 9월 14일 오후 9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되며, 안거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종정 도용 스님의 대중법문이 펼쳐진다.

한편 결제식은 교무부장 경혜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국운융창기원 △결제법어 △결제사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우란분재와 어미 왜가리

최악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2018년 한반도의 여름 어느날. 어미 왜가리가 날개로 그늘막을 만들어 갓 나온 새끼들을 폭염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등지고 새끼들을 보살피던 어미 왜가리는 해가 중천에 뜨자 날개를 크게 펼쳐 그늘막을 만들고 움직이는 해를 따라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면서도 어미 왜가리는 하루종일 단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며칠째 새끼들을 지켰고, 저녁이 돼서야 먹이를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구하는데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선행을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 어머니의 선행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미를 살린 인연으로 목련존자는 거미줄을 지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줄에 매달려 나오다가 수많은 지옥중생들이 줄줄이 다리를 잡고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발로 차는 순간 거미줄이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러주셨습니


우란분재와 어미 왜가리 그림 · 조향숙

'우란분재'는 조상천도와
현세부모 복락기원 의식
고통나눔의 無緣大悲 수행

철새 관찰용 CCTV에 생생히 찍힌 그 감동의 모성애는 TV뉴스로 방영되고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는 8월 25일(음력 7월 15일)은 무술년 하안거 해제일 백중이며 우란분재(盂蘭盆齋)일입니다.

우란분재는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를 행하는 스님들에게 갖가지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선망부모의 영가천도와 현재 부모의 복락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지중합니다. 마치 어미 왜가리가 폭염 속에서 새끼를 지켜내듯 세상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은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우란분재는 이같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효행 입니다.

우란분재의 우란분은 범어의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말로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란분재는 목련존자가 아비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는데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선행을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 어머니의 선행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미를 살린 인연으로 목련존자는 거미줄을 지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줄에 매달려 나오다가 수많은 지옥중생들이 줄줄이 다리를 잡고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발로 차는 순간 거미줄이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안거 해제일에 청정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선망부모를 구제할 수 있다."

*지옥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교가 있습니다. 우란분재 백중기도는 한맺힌 모든 고혼 중음신을 이고득락케 하는 천도의식입니다. 중음신은 집착이 강합니다. 한이 두꺼워 한번에 천도가 안되면 점점 녹여야 합니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송환'을 합의했고, 68년 전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일부 미군들의 귀국 의전에서 감사와 빛진 마음으로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은 '미국식 우란분재'였습니다. 영가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란분재일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는 지장보살의 대비(大悲) 원력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은 지옥에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널리 보시하고 공양하여 고통을 더는 무연대비(無緣大悲) 공덕나눔과 효행으로 자기 중생심을 제도합시다. 그것이 양심회복의 수행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